



[해설] 메자닌펀드의 역습
깜깜이투자
손실 눈덩이 '펀드런'
03



Economy

| | | | |
|-------------|---------------------|-----------|--------------------------|
| 코스피 | 2028.15 (-18.10) | 코스닥 | 634.73 (-0.68) |
| 금리 (국고채 3년) | 1.28 (+0.01) | 환율 (원-달러) | 1196.20 (+3.10) (10일) |

임기종료 함께 사라질

20대국회 슬픈자화상

법안 1.5만건 역대최대

20대 국회 '조국 공방'만 가열 자동폐기 6개월도 채 안남아 '역대급 낙제점' 오명 불가피 대량 통과 땀 '졸속처리' 파장 경기악화 속 재계·여론 실망감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건의 자동 폐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조국 정국'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1만5748건에 달했다. 이번 의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월 계류 법안은 약 1만건으로,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200여개의 법안을 더 처리했다.

이번 국회의 경우 매달 1700건 이상의 법안을 심사해야 오는 12월까지 전 임 국회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다. '역대급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법안을 대량 통과시키더라도 '졸속 처리'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 양으로만 의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 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80%가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이번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다. 이달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총선 정국'에 접어들는다. 법안 처리 기회는 사실상 두 달 남은 실정이다.

관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퇴진' 사이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자리까지 보이콧(불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3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박문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 당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상생협력 MOU 서명자, 흥남기 경제부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강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퀀텀닷에 13조... JY, 디스플레이 "퀀텀점프"

삼성전자, QD사업 동큰 투자 발표 아산1캠퍼스 L8생산라인 일부 전환 2021년 65인치 QD디스플레이 생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133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일자리 창출과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QD(퀀텀닷, 양자점 물질)디스플레이' 사업에 총 13조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대형 LCD를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L8 생산라인의 일부를 'QD 디스플레이'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투자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3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Q1' 라인으로 명명된 이곳에서는 초기에 65인치 초대형 QD 디스플레이 패널을 월 3만장 수준으로 생산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

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 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QD' 개발 초기부터 부품 공급망 안전화를 통한 전후방 협력생태계도 구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공급망 안정화 ▲원천기술 내재화 ▲부품경쟁력 제고 ▲신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후방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잉크젯 프린팅 설비, 신규 재료 개발 등 QD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들과 함께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QD 디스플레이' 투자 결정은 이 부회장의 과감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BOE를 비롯한 중국 LCD 업체들은 8.5세대 공장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10.5세대 라인을 돌리며 LCD의 가격을 급락시켰다. 이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업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소형 OLED에도 2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수십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총수이자 오너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충남 아산 탕정 공장을 찾아 사장단 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QD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유색페트병 금지 '자원재활용법' 눈앞... 주류업계 어찌나

12월 25일부터 개정안 시행 소주, 무색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맥주는 자외선 등으로 변질 위험

주류업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 병 등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변경 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유색 페트병은 더 사용할 수 없으며, 무색으로 바뀌어야 하고 라벨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9개월이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참이슬 페트병은 400ml, 500ml, 640ml, 1800ml 등이다. 전 구성 모두 무색으로 교체, 순차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400ml, 640ml, 1000ml, 1800ml 페트병이 이달 중에 모두 무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이 인수한 제주 소주는 2017년에 '푸른밤' 소주를 무색 페트병으로 선보였다. 당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업계에서도 소주의 경우 무색으로 페트병을 바꿔도 신선도를 헤치거나 변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맥주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맥주의 경우는 갈색 페트병을 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색으로 바뀔 경우 맥주는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해도 변질에 위험이 없다"며 "맥주의 경우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의 약 16%가 페트병에서 나올 정도로 페트병 제품은 매출 기여도가 높다. 이에 맥주 페트병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페트병 형태의 대용량 맥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출시하고 있어 페트병 색깔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연말부터는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를 갈색병으로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빛이 투과되면 안되기 때문이다"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시) 품질 문제가 가장 크다. 당국에서도 알고 있으며,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색 페트병은 3중막 복합재질로 나일론과 페트의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재생원료로 가공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 갈색 맥주 페트병 퇴출을 추진해 왔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